

주한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 및 주생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ous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Dwelling for Foreign Students in Korea

안선민* 장상옥** 신경주***
An, Seon-Min, Jang, Sang-Ock, Shin, Kyung-Joo

I.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우수 인력의 확보 및 양성이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인식하에 각국에서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 및 중국에서도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그 동안 외국인 학생 유치에 관심이 부족했던 우리나라에서의 유학생은 1999년에 6,279명, 2001년에 11,646명, 2003년에 14,146명으로 유학과 어학연수 목적으로 입국한 학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수적 증가에 대응한 국내대학의 유치 후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국내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장학금 혜택, 기숙사 이용, 외국어 진행 강좌 수, 의료혜택 등의 유학생 유치 기반은 크게 약한 편이다. 특히 이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주 장소인 기숙사는 시설 수준이나 수용 규모면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여 이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기숙사의 배정 또한 대학 본 과정 재학생을 위주로 이루어져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어학연수를 받는 학생들은 기숙사 혜택을 제공 받지 못함으로써 한국 대학의 유학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대학외부의 주거여건(하숙, 자취 등)도 미흡하여 유학생들은 대학내외의 적절한 거주 장소를 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따라서 우수한 외국유학생 유치를 위해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쉽게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주거의 제공은 시급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이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

한데, 관련 연구는 대부분 현황 파악, 단순 주거실태 조사 등만 이루어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실제적인 데이터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한국 거주 외국인유학생들에게 적합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먼저 이들의 주거선택과 주생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주거지 선택 유형과 주생활특성을 파악하여 유학생들에게 적합한 주거계획을 위한 기초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향후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주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에서의 개인생활과 더불어 유학생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조사는 질문지조사를 선택하였다. 조사대상은 주한 외국인 유학생 중 기숙사 혜택이 없어 주거지 선택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학연수생을 선정하였다. 대상 학교의 선정은 서울시 소재 대학교 중 비교적 외국 유학생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측에 설문조사를 포함한 자료수집에 대한 협조를 타진한 결과, 이를 수락한 4개 대학(건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을 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기타 개인적으로 설문협조가 가능했던 2개 대학(서울대, 연세대)을 포함하여 총 6개 대학을 대상으로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을 하였다. 먼저 유학생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질문지를 배부한 후 기입하게 한 후 다시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영문과 한글이 같이 표기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예비조사를 거쳐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2003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조사하였다. 배부된 총 340부의 질문지중 200부(59%)가 회수되었고 부실기재 29부를 제외한 171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정회원, 한샘 인테리어

**정회원, 경상대 가정교육과 조교수, 가정학박사

***정회원, 한양대 실내환경환경디자인학과 교수, 학술박사

개인특성과 주거특성 및 주생활특성, 기타특성 파악은 빈도와 백분율 등을, 주거 유형에 따른 개인, 주거, 주생활 특성파악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외국인 유학생의 일반적 특성

성별은 남성(46.8%)과 여성(53.2%)이 비교적 비슷하며, 연령은 20대가 주류이며(83%)이며 교육수준은 대학교(전문대 포함) 재학 및 졸업이 64.9%로 고학력 집단이다. 월평균 생활비는 75만원미만이 가장 많았다. 출신지역은 아시아계가 전체의 86%(중국 53.8%, 일본 23.4%)로 가장 많았고 기타 아시아계(8.8%), 북미(7.6%), 유럽계(5.8%)로 구성되었다.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은 6개월 미만이 41.5%로 가장 많았고,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25.7%, 1년에서 2년 미만이 19.9%, 2년 이상 3년 미만이 10.5%, 3년 이상이 2.3%로 나타났다. 거주 예정기간은 2년 미만이 57.3%, 2년 이상 및 미정이 42.7%이다.

2. 주거 선택 유형

유학생이 선택하는 주거유형은 자취가 50.3%로 가장 많고 이어서 하숙(27.0%), 기숙사(12.9%), 고시원(9.8%)의 순으로 자취와 하숙이 약 80%가량 된다. 주거의 선택 배경에는 가격요인이 23%로 가장 높았고, 학교와의 거리가 15%, 안전성이 13%로 나타났다. 편리한 시설과, 교통, 프라이버시와 방의 크기는 각각 8.4% 수준에 준하는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고, 기타 6%, 한국 문화 체험이 5%, 친구사귀기가 4%이다. 이로 보아 이들이 주거를 선택시의 주요 요인은 경제성, 근접성, 안전성임을 알 수 있다.

주거유형별 선택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기숙사

기숙사는 첫째, 가격이 가장 큰 요인이며, 이어서 안전성으로 나타나 집단의 구성원이 자비유학보다는 정부초청 장학생 혹은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선택의 여지없이 학교 측으로부터 기숙사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게 되거나, 유학업체로부터 숙소를 제공받게 되는 경우이다.

2) 하숙

하숙집단 역시 가격이 주거선택에서 가장 큰 요인이며, 이어서 학교와의 거리, 한국문화 경험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와 가까운 입지조건에서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하숙의 장점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3) 자취

자취집단의 경우에도 가격이 가장 중요한 선택요인이며, 안전성, 편리한 시설이 차선의 요인이다. 자취는 보통 1-2인이 거주하여 독립적인 주생활이 가능하므로 시설면에 있어서 보다 편리하다고 보였다.

4) 고시원

고시원에 거주하는 유학생은 무엇보다 가격요인(30%)이 매우 높고, 학교와의 거리, 타 집단 대비하여 상대적으

로 높은 프라이버시가 세 번째 요인이다. 1인1실 위주의 고시원은 협소하여 불편하나 저렴한 가격에 프라이버시를 보장받기에는 아주 매력적인 유형이라 볼 수 있다.

3. 주거유형과 주거특성

주거유형에 따른 주거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χ^2 검증을 한 결과 이사 횟수, 주거점유상태, 주거비용, 이사계획 여부 등의 주거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표 1>.

주거임대료는 무보증 월세가 52.1%로 가장 많고 이어서 보증부 월세(26.4%), 무상(12.3%)의 순이며, 매월 거주비용은 30만원 미만이 반 정도(47.2%)이며, 30만원 이상은 36.2%이다. 이외에 전세는 2.5%로 매우 적다. 한국 거주 동안 이사횟수는 첫 주거지를 정한 후 한번도 하지 않은 경우가 47.9%, 1회가 19.6%, 2, 3회가 각각 16.6%, 16%로 과반수가 1회 이상의 이사경험을 갖고 있다. 앞으로의 이사계획은 없다가 50.0%, 있다가 49.1%로 반 정도는 이동을 계획하고 있다.

주거유형별 주거 점유상태를 보면, 기숙사집단은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저렴한 수준의 무보증 월세 방식을, 하숙과 고시원 집단에서는 무보증 월세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자취 집단의 경우 얼마의 보증금을 내고 매달 월세를 지불하는 보증부 월세 방식 위주로 거주하고 있다.

주거유형별 거주비용은 기숙사에서는 무상으로 거주하는 비율이 8%로 가장 높고, 하숙 집단에서는 30-40만원이 11%로 가장 높았다. 자취의 경우 보증부 월세의 경우와 무보증 월세의 경우가 각각 다르나 20만원 미만을 지

표 1. 주거유형과 관련 요인 N=163

		현 주거 유형				계
		기숙사	하숙	자취	고시원	
주거 점유 상태	무상	10(6.1)	4(2.5)	6(3.7)		20(12.3)
	무보증월세	11(6.7)	37(22.7)	21(12.9)	16(9.8)	85(52.1)
	보증부월세	-	3(1.8)	40(24.5)	-	43(26.4)
	전세	-	-	15(9.2)	-	15(9.2)
	계	21(12.9)	44(27.0)	82(50.3)	16(9.8)	163(100)
$\chi^2=98.61^{***}$ df=9 p=.000						
거주 비용	무상	13(8.0)	2(1.2)	7(4.3)	1(6)	23(14.1)
	20만원미만	5(3.1)	2(1.2)	26(16.0)	4(2.5)	37(22.7)
	20-30만원미만	1(6)	9(5.5)	21(12.9)	9(5.5)	40(24.5)
	30-40만원미만	1(6)	18(11.0)	9(5.5)	2(1.2)	30(18.4)
	40만원이상	1(6)	13(8.0)	15(9.2)	-	29(17.8)
	전세	-	-	4(2.5)	-	4(2.5)
계	21(12.9)	44(27.0)	82(50.3)	16(9.8)	163(100)	
$\chi^2=88.18^{***}$ df=15 p=.000						
이사 횟수	0회	16(9.8)	27(16.6)	31(19.0)	4(2.5)	78(47.9)
	1회	3(1.8)	8(4.9)	14(8.6)	7(4.3)	32(19.6)
	2회	1(6)	7(4.3)	17(10.4)	2(1.2)	27(16.6)
	3회이상	1(6)	2(1.2)	20(12.3)	3(1.8)	26(16.0)
	계	21(12.9)	44(27.0)	82(50.3)	16(9.8)	163(100)
$\chi^2=25.819^{**}$ df=9 p=.002						
이사 계획 여부	예	4(2.5)	22(13.5)	46(28.2)	8(4.9)	80(49.1)
	아니오	17(10.4)	22(13.5)	36(22.1)	8(4.9)	83(50.9)
	계	21(12.9)	44(27.0)	82(50.3)	16(9.8)	163(100)
$\chi^2=9.215^*$ df=3 p=.027						

* P<.05 ** P<.01 *** P<.001

불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고시원 집단의 경우 20-30만원 미만을 지불하는 사례가 높았다. 따라서 하숙집단에서 가장 높은 주거비용을 지불하고, 기숙사 집단에서 가장 적은 주거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유형별 이사 횟수는 기숙사의 경우 이사경험이 없는 경우가 9.8%로 가장 높았고, 하숙의 경우도 16.6%가 이사경험이 없었다. 자취는 이사경험이 없는 경우가 19.0%로 집단 내에서 가장 높았으나, 2, 3회 이상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고시원의 경우에는 전체의 4.3%가 1회의 이사경험이 있었다.

주거유형별 향후 이사계획은 기숙사 집단이 하숙, 자취, 고시원 집단에 비해 현 주거에 계속 거주하려는 의사가 높아 기숙사 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거주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된다.

4.주생활특성

1) 주생활특성

평균 거주시간은 9시간에서 12시간미만이 42.1%로 가장 많았으며, 6시간에서 9시간미만은 30.4%, 12시간 이상 16.4, 6시간미만 11.1%의 순으로 나타나, 하루 평균 9시간 이상의 거주가 58.5%로 나타났다.

학습장소는 학교(50.3%)와 본인의 주거(42.7%)이며, 휴식 장소는 본인의 주거가 88.9%로 가장 높았다. 주말을 보내는 장소는 학교나 친구 집 등 주거 이외가 56.1%로 주말을 이용하여 시내에서 주로 쇼핑을 하거나,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비율이 높다.

주거에서의 식사 빈도는 '2회 정도'가 40.9%로 가장 많았고, 1회가 30.4%, 0회가 19.3%, 세끼모두 식사가 9.4%로 집에서 식사를 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다. 식사종류는 아침식사 경우, 토스트와 같은 간단한 취사가 36.8%로 가장 높았다. 기숙사나 하숙집에서 제공하는 식사의 경우는 20.5%, 식당에서의 식사는 12.8%, 편의점이나 기타 장소에서 식사하는 경우는 5.3%로 나타났다.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비율은 24.6%로 조사대상자의 1/4정도가 아침식사를 결식하고 있다. 점심식사의 경우, 교내식당을 비롯한 식당 이용이 80.1%로 가장 높았고, 직접취사는 11.1%, 기숙사나 하숙집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4.7%, 집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먹는 등 기타의 경우가 4.1%로 나타났다. 저녁식사의 경우, 직접취사의 경우가 가장 많았고(40.9%), 기숙사나 하숙집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하는 경우가 21.1%, 식당이용이 31.6%를 차지하였다. 이로 보아 아침과 저녁 식사는 주거에서 해결하는 경향이 높아 유학생 주거의 취사공간 확보 및 유형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샤워의 빈도는 하루에 0-1회 정도는 78.9%, 2회 이상이 20.5%, 샤워시간대는 오전이 17%, 오후가 59.1%, 오전 및 오후가 24.0%로 주로 오후에 이루어진다.

세탁행위를 살펴보면, 세탁방법은 개인세탁기 이용이 50.9%, 공동세탁기 이용은 36.8%로 자취빈도와 하숙 및 기숙사 이용 빈도와 비교하면 그 비율이 유사하다. 손빨래의 경우 8.4%, 빨래방 및 세탁소 이용은 3.5%로 나타

나 외국인 유학생은 자신이 직접 세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탁 빈도는 1주일에 2-3회가 58.5%로 가장 많았다. 건조방법은 빨래건조대 이용이 80.7%로 가장 많았고, 건조기사용은 6.4%로 적은 편이다. 건조대 사용 장소는 침실이 가장 많았고(36.3%), 다음이 발코니(22.2%), 세탁실(17.5%), 옥상 및 마당(17%) 순이었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세탁하는데 적절한 건조공간이 부족하므로 이들을 위한 주거계획 시는 경제적인 면을 고려한 건조공간이 구비된 세탁공간의 검토가 요구된다.

학교까지의 통학시간은 30분 이내가 66.7%로 가장 많았고, 30분에서 1시간 이내가 21.1%, 1시간 이상이 12.3%로 나타나 90%가까운 유학생의 주거는 1시간 이내의 통학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통학수단은 도보가 50.9%, 버스만 4.7%, 지하철만 35.7%, 버스와 지하철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7.6%로 도보 및 지하철 이용이 높다.

2) 주거유형 별 주생활특성

주거 유형에 따른 주생활특성에서는 하루평균 거주시간, 주말을 보내는 장소, 주거 내에서의 하루평균 식사횟수, 아침식사방법, 저녁식사방법, 세탁방법, 건조장소, 통학시간, 통학수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루평균 거주시간과 주거 유형과의 교차분석 결과 4 유형 모두에서 9-12시간미만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고시원 집단은 6시간미만 거주하는 비율이 9-12시간 거주하는 비율과 같아 주거 내의 하루 평균 거주시간이 타 집단에 비하여 짧다고 볼 수 있다.

주거유형 별 주말을 보내는 장소는 기숙사의 경우 본인의 주거에서 주말을 보내는 비율과 주거 외 장소에서 보내는 비율이 비슷하고, 하숙과 고시원의 경우에는 주거 외 장소에서 주말을 보내는 경우가 각각 18.4%, 7.4%로 각 집단 내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자취의 경우, 전체의 27.6%가 본인의 주거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다.

주거유형별 주거에서의 하루평균 식사횟수는 하숙집단은 타 집단 대비보다 높고, 기숙사와 고시원집단은 그 횟수가 적었다. 아침식사방식은 하숙과 자취집단의 경우 식사서비스를 제공 받거나, 직접 취사하는 방식 등으로 주거 내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았고, 기숙사집단에서는 기타의 방식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저녁식사방식을 보면 기숙사 집단은 식당 이용이 6.1%로 가장 높았고, 하숙의 경우 식사 서비스에 의해 저녁을 제공받는 경우가 17.8%로 높았다. 자취의 경우도 아침식사와 마찬가지로 직접취사의 비율이 높았다. 고시원의 경우 식당 이용 경우가 전체의 4.9%로 집단 내에서 가장 높았다.

주거유형 별 샤워관련 행위는 유의적인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즉, 모든 주거 유형에서 하루 0-1회 정도의 샤워가 이루어지는데 주로 오후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다.

주거유형별 세탁방법은 기숙사 집단과 하숙집단, 고시원 집단에서는 주로 공동세탁기를, 자취집단에서는 개인세탁기의 사용 비율이 높았다. 기숙사의 경우 공동세탁기 사용이 보편적인데 본 연구에서는 개인세탁기와 공동세탁기의 사용비율이 비슷하여 유학업체 등에서 제공하는

자취형태의 사설 기숙사 거주로 해석된다. 세탁물 건조 장소는 기숙사의 경우에는 주로 침실이 활용되고, 하숙과 자취집단은 발코니, 세탁실에서 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시원 집단의 경우에는 침실과 발코니 및 세탁실에서의 건조 비율이 각각 비슷하였다<표 2>.

주거유형 별 통학시간은 모든 집단에서 30분 이내의 통학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자취의 경우 30분-1시간 이내의 비율도 전체의 17.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기숙사, 고시원, 하숙집단에서의 통학시간이 자취집단의 통학시간보다 적게 걸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학수단은 기숙사, 하숙, 고시원 집단에서는 도보의 비율이 높은데 반해, 자취집단에서는 대중교통의 이용 비율이 높았다.

표 2. 주거유형별 세탁행위

		현 주거 유형				
		기숙사	하숙	자취	고시원	계
세탁 빈도	매일	1(6)	1(6)	12(7.4)	1(6)	15(9.2)
	2-3회/1주	13(8.0)	29(17.8)	45(27.6)	11(6.7)	98(60.1)
	1회/1주	4(2.5)	12(7.4)	20(12.3)	4(2.5)	40(24.5)
	1회/2주	3(1.8)	2(1.2)	5(3.1)	-	10(6.1)
	계	21(12.9)	44(27.0)	82(50.3)	16(9.8)	163(100)
		$\chi^2=10.187$ df=9 p=.336				
세탁 방법	개인세탁기	9(5.5)	15(9.2)	51(31.3)	4(2.5)	79(48.5)
	공동세탁기	12(7.4)	26(16.0)	15(9.2)	11(6.7)	64(39.3)
	손세탁	-	1(6)	12(7.4)	1(6)	14(8.6)
	유료시설이용	-	2(1.2)	3(1.8)	-	5(3.1)
	기타	-	-	1(6)	-	1(6)
계	21(12.9)	44(27.0)	82(50.3)	16(9.8)	163(100)	
		$\chi^2=35.830^{***}$ df=12 p=.000				
건조 방법	건조기	5(3.1)	3(1.8)	16(9.8)	2(1.2)	26(16.0)
	빨래건조대	15(9.2)	41(25.2)	62(38.0)	14(8.6)	132(81.0)
	기타	1(6)	-	4(2.5)	-	5(3.1)
	계	21(12.9)	44(27.0)	82(50.3)	16(9.8)	163(100)
		$\chi^2=8.220$ df=6 p=.222				
건조 장소	침실	10(6.1)	16(9.8)	24(14.7)	6(3.7)	56(34.4)
	발코니, 세탁실	6(3.7)	19(11.7)	35(21.5)	7(4.3)	67(41.1)
	마당 혹은 옥상	-	9(5.5)	18(11.0)	2(1.2)	29(17.8)
	기타	4(2.5)	-	-	1(6)	5(3.1)
	해당사항없음	1(6)	-	5(3.1)	-	6(3.7)
	계	21(12.9)	44(27.0)	82(50.3)	16(9.8)	163(100)
		$\chi^2=33.129^{***}$ df=12 p=.001				

** P<.01 *** P<.001

IV. 결론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기숙사는 학생들의 주거문제의 해결, 경제적 어려움의 해소만 아니라, 공동생활을 통한 건강한 문화를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타 주거 유형에 비해 가장 경제적이므로 적극 추천되는 유형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대학기숙사의 양적 확대가 요구되며, 기숙사 계획 시는 스스로 취사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단체급식보다는, 공동부엌이나 각 단위실에 취사가 가능하도록 계획하는 편이 효율적일 것이다. 또 프라이버시를 고려함과 동시에 관련 정보의 상호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기숙사의 추가 건설이 어렵거나 교내 기숙사에 학생을 수용할만한 여력이 없을 경우 학교 주변의 주택을 매입하여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하숙은 한국인 가정에서 식사를 제공받으며, 한국문화 체험 및 정보를 적극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거주환경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선호하나, 한정된 생활비로 높은 수준의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이 되므로 다소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경우 선택이 가능하겠다.

자취는 현지인과 같은 생활을 체험하며 장기간 거주를 희망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며, 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형이다. 특히 타 집단에 비해 거주기간이 길게 나타나 장기간의 한국거주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선호된다고 볼 수 있다. 점유방식은 전세와 보증부 월세와, 무보증 월세 방식으로 임대되는데, 전세희망자와 무보증 월세 희망자가 다양하게 분포하므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가를 서로 절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고시원은 개인생활을 하고자 하되 보증금에 대한 부담으로 주거를 임대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있어 자취에 대한 대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주한 외국인 학생들의 주거생활은 기숙사, 하숙, 자취 등을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각 유형은 공통성과 상호배타성이 공존하여 어느 한 가지 유형만이 유학생을 위한 주거로서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즉 가격과 안전성, 학교와의 거리 요인 이외에도 한국문화체험을 기대하는 학생은 하숙형태를 선호하고, 편리한 시설을 기대하는 학생은 자취를 선택하며, 프라이버시를 우선으로 하되 경제적 여유가 넉넉하지 못한 이들은 고시원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주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주거문제에 대해 대학당국과 정부는 부족한 기숙사 시설을 제공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종합하면 주한 외국인 유학생은 자기 처한 상황과 개별적 조건 및 체류 목적에 따라 주거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장점이 반영된 주거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겠다.

참고 문헌

1. 교육부(2001), 외국인 유치 확대 종합방안.
2. 교육부(1999), 대학의 국제화 지원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 과제.
3. 박혜진(1997), 정보화시대 대학교육 국제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야노미치코(2002), 재한 일본 유학생의 스트레스 사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한국경제신문(2003),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교육 기반 취약', 2003.10.23
6. Richard Dober(1964), Campus Planning, Reinhold, Publishing Co.